

## 개인화 시대의 하이브리드 자원봉사 조직화와 적극적 시민성: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소모임 활성화 사업의 시민교육적 효과\*

이선미\*\*

본 연구는 적극적 시민성과 하이브리드 조직화의 관점에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지역 소모임 활성화 사업」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 사업의 시민교육적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의 자원봉사 변화는 개인화라는 사회학적 거시변동과 연관할 때 잘 이해될 수 있다. 개인화에 대한 제도적 대응으로 등장한 “제도주의적으로 개인화된 자원봉사”로의 변화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변화는 적극적 시민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양가적이다. 이런 배경에서, 취미와 관심 중심의 지역사회 소모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 「지역 소모임 활성화 사업」은 적극적 시민성과 하이브리드 관리를 결합한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이 사업에서 얻어진 자료 분석을 통해 참여자의 시민적 태도 향상을 검증한 결과, 사업을 통해 참여 자원봉사자들의 시민적 태도가 향상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원봉사 실무자의 사회정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 | 주제어 |

적극적 시민성, 자원봉사센터, 개인화, 민주시민교육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2020-0406).

\*\* 서울여자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

## I. 서론

민주시민교육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지식과 규범 교육을 넘어 생활영역 전반의 ‘시민적 삶’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심정보, 2008; 2017). 그런데 개인화 시대에 그 시민적 삶의 조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개인의 욕구와 자기실현이 집합적 규범과 공유된 가치에 대한 헌신보다 더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민참여 중간지원기관에 의한 위로부터의 기획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분산된 개인들이 개별화된 관심과 능력을 발휘하되 서로 협력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회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풀뿌리 운동과는 구분되는- 위로부터의 정교한 기획이 필수적인 것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Eliasoph, 2009). 이러한 기획의 효과는 두 개의 축, 즉 공공성에 대한 기여 요청과, 참여 개인의 개별화된 욕구 만족 간의 균형을 얼마나 잘 맞추는가에 달려 있다.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위로부터의 개입은 개인화 시대로의 거대한 변화에 직면한 제도 차원의 대응이다. 자원봉사 영역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의 자원봉사는 전통적인 복지 중심의 노력형 봉사를 넘어서, 다양한 활동 영역, 다양한 참여자를 포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마을만들기, 평생교육,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등의 주제로 지역에서 작동하는 다양한 시민참여 거버넌스 제도들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을 하나의 방법으로 채택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도 변화 압력을 받아왔다. 실제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0여년 동안 지역 내 복지 수혜자와 자원봉사자 사이를 매칭하는 행정 기능을 넘어, 지역사회 실천을 원하는 다양한 주민들의 관심과 욕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방식의 자원봉사 관리를 실험적으로 시도해 오고 있다.

2016년에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지자체 센터들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화한 「지역 소모임 활성화 사업」은 이런 실험적 시도 중 하나였다. 지자체 센터가 지역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취미, 관심 중심의 공식·비공식 소모임을 직접 발굴하여, 이들의 관심과 능력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위로부터의 기획이었다. 1996년~2002년 전국 지자체 단위 자원봉사센터 설립이 완료된 이후부터 한국에서는 개인 중심의 모집-배치가 정착되었는데, 2010년대 자원봉사 포털이 활성화되면서부터 이러한 개인 중심의 모집-배치가 더욱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시민사회단체 멤버십, 자원봉사, 그리고 시민교육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활성화되었던 유럽의 경험과는 다른 경로를 걷게 된다. 개인 중심의 모집과 배치는, 비록 그것이 자원봉사자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배치라고 할지라도, 참여 시민들 간의 의사소통,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확대보다는 개인에게 할당된 ‘일’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보상(예를 들어, 봉사시간 축적)을 교환하는 것으로 그 효과가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기초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원봉사 교육이 있었으나, 이 역시 개인들이 수행해야 할 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주의사항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2016년 「지역 소모임 활성화 사업」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실천적 시민교육으로서의 성격을 보완하고자 한 실험적인 시도였다. 지역사회 내 이미 존재하는 관심과 취미 중심 소모임을 발굴하여, 기존 모임 구성원 사이 혹은 다른 시민들과의 의사소통을 유도하고, 그들의 사적인 관심과 능력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실천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 관리 혹은 조직화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개입 방식은 멤버십 관리와 프로그램 관리를 혼합한 하이브리드(hybrid) 조직화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Hustinx, 2010). 또한 서로 다른 관심과 작동 논리를 가진 차원들, 즉

자기실현과 이해를 추구하는 개인, 취미와 관심 기반의 느슨한 소모임, 공공성을 강조하는 공식 조직 및 기관이라는 서로 다른 차원들 사이의 다층적(multi-level) 상호작용이 작동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본 연구는 자원봉사의 시민교육적 성격 회복을 강조한 ‘적극적 시민성(active citizenship)’ 개념과 개인화 시대 하이브리드 방식의 자원봉사 관리의 등장 배경을 설명하고, 이 두 경향을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하는 시범적 시도로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소모임 기반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의 의의를 검토하고 그 시민교육적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개인화 시대와 시민적 삶의 조건 변화

사회자본론은 자원 결사체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이론이다. Tocqueville(2013)의 『미국의 민주주의』, Putnam(2000)의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는 투표, 정당제도 등과 같은 민주주의 제도가 아닌, 일상에서의 시민적 삶(civic life)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고전 저작들이다. 자원 결사체 멤버십과 자원봉사 참여는 바로 이 시민적 삶의 대표적 형태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밑거름이자 동시에 그 성공의 핵심 지표로 다루어져왔다. 왜냐하면 자원 결사체와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시민들은 서로 다른 사람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체험하고 공공 문제에 대한 관심과 관점을 익히며 그 해결을 위한 시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결사체 활동을 통해 개인은 서로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와 걱정 등에 대해 알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 되기 위해 필

요한 조직 스킬, 의사소통 스킬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로부터 개인은 고립에서 벗어나 연결을 경험하고 그들의 공적 생활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Wilson, 1997; Licherman, 2006).

시민적 삶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Tocqueville 과 Putnam은 미국의 현실 진단에서 다른 결론을 내린다. 150여 년 전 Tocqueville은 미국의 현실을 활발한 자원 결사체 참여와 자원봉사 활동으로 진단했다면, 2000년대 Putnam은 미국의 시민적 삶이 현저하게 후퇴했다고 진단한다. Putnam 이후, 여러 국제비교 연구들의 공통적인 결론 역시 과거 활발했던 시민적 삶의 시대는 점차 저물어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역 주민들 사이의 면대면 활동을 촉진하는 다양한 지역 클럽 혹은 모임에의 멤버십 활동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자원 결사체의 중요성은 그것이 가지는 시민교육적 효과와 함께 자원봉사 실천과 같은 또 다른 시민 참여의 원천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원 결사체 및 자원봉사 참여의 감소 등 시민적 삶의 쇠퇴는 민주주의 전반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면서 큰 우려를 낳았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개인화라는 사회학적 거시변동이 있다. 개인화(individualization)는 집단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전통적인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개인이 증가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사회학적 개념이다. Beck(1997)에 따르면, 80년대 중반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개인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때 개인은 '나' 중심적 사고를 보이며 전통적인 집단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함에 따라 가족, 계급, 지역, 국가 등과 같은 과거 개인 정체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집단 소속 의식이 약하다. 개인화 현상은 일차적으로 '나-중심 사회'의 등장이라는 일종의 문화적 현상을 지칭하지만, 그 배경에는 후기 근대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제도의 변화라는 물질적·제도적 조건의 변화가 있다(Lash, 2002; 홍찬숙, 2017). 즉, 신자유주의적 세계

화의 확대로 '인적 자원' 중심의 접근이 확대되고, 노동 시장이 요구하는 높은 이동성에 따라 가족 등 전통적인 구속이 없는 개인이 기업 내 승진 등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과 같은 변화 외에도, 전반적인 교육 기회의 확대, 복지제도 및 노동관계의 제도화 등에 따른 권리 인식의 확대, ICT 기술의 발달 등이 개인화를 추동했다.

그러나 개인화가 필연적으로 고립이나 공동체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장소 기반적인 면대면 상호작용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개인화 이론가들에 따르면, 오히려 개인화는 사회적 관계의 재구조화, 새로운 사회성 양식을 향한 대전환을 촉발한다(Beck and Beck-Gernsheim, 2002; 김혜경, 2017; Rainie and Wellman, 2012). 개인은 자신과 비슷한 마음을 가진 다른 개인들을 찾아 다양한 모임들을 만들기도 하고, 문화적이고 개인적인 연결을 통해 가치와 관심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느슨한 공동체 혹은 프로젝트를 시도하기도 한다. 이전과 다른 종류의 사회적 결속 시도들이 다양하게 등장한다는 것이다.

공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봉사의 조직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결속 시도들에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개인화와 함께 이웃 및 공적 문제에 대한 관심 자체가 줄어들거나, 관심은 있지만 개별화된 방식의 참여와 느슨한 연결을 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지속적·적극적 참여를 요구하는 기존의 시민참여 제도들과 갈등과 긴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모든 시민들이 무임승차 없이 사회 전체에 필요한 공공선을 집합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요구와, 개별화된 욕구와 관심에 의한 새로운 사회적 결속 경향 사이에는 큰 간격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개인의 요구와 조직의 요구 간 긴장과 갈등으로 인해 다시 조직 참여가 감소하고 획일적인 시민교육에 대한 거부감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실제로, 사회자본론이 가정한 단체 멤버십-자원봉사 실천-시민교육

의 연결 고리는 개인화 시대라는 새로운 조건에서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단체 멤버십은 약화되거나 소극적 성격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단체 멤버십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드는 자원봉사에는 참여하지 않거나,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시민적 가치와 규범의 공유와는 동떨어진 단기간의 체험적 봉사에 그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Hvenmark and von Essen, 2010).

한국 통계청 사회조사(2011, 2013, 2019)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취미와 관심사를 기반으로 일시적으로 느슨하게 연결된 다양한 비공식모임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2019년 현재, 응답자의 66.1%가 취미활동 등 각종 단체/모임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는 2011년 46.6%, 2013년 50.1%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활동하는 단체의 종류로는 <친목 및 사교단체>가 가장 많았는데, 단체 참여자의 77.4%(중복 응답)에 달했다. 다음으로 <취미, 스포츠 및 여가활동단체>(47.3%), <종교단체>(28.7%), <시민사회단체 및 봉사단체>(12.6%), <지역사회모임>(11.5%) 등의 순이었다. 2013년과 2019년을 비교했을 때, 20대는 친목모임 참여가 감소한 반면, 취미 모임, 학술단체, 종교모임 등의 참여가 증가하였다. 30대는 종교 모임이 감소한 반면, 취미 모임 참여가 대폭 증가하였다. 40대 이상에서는 모든 단체 유형에서 증가를 보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분야는 단연 취미 모임이었다.

반면, 한국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019년 현재 16.1%로서 2013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9). 이들의 평균 참여 시간은 23.1시간으로 이 역시 2년 전보다 감소하였다. 자원봉사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57.7%)가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환경보전범죄예방(20.4%), 기타(무료상담 등, 17.5%)가 비교적 높은 비율로 그 다음 순위들을 차지하였다. '기타'가 이전 년도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는 것은 전통적인 자원봉사 분야 구분으로는 파악하기 어려

운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 내용에 관한 응답에서도 확인된다. 아동학습지도(23.5%), 의료(11.5%), 운전(10.6%), 요리(9.2%), 주택수리(8.4%) 등 전통적인 대인 서비스 분야가 높았지만, 공연(9.3%), 평생학습관련(7.8%), 전문상담(5.7%), 통역 및 번역(2.7%) 등 문화·취미 분야의 비중이 이전 년도들에 비해 점차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한국에서 자원봉사를 시민교육과 연계하고자 하는 관심이나 노력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학술적 연구에서는 학교 서비스러닝 혹은 성인 자원봉사 경험의 시민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심성보, 2008; 원미순·박혜숙, 2010), 자원봉사 활성화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김태룡·안희정, 2009) 등 소수의 연구가 있었고,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되는 교육의 일환으로 시민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시도가 있었으나 행정 중심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나 실무자의 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확산되지는 못했다. 다양한 유형의 학습·취미 모임의 시민교육적 성격에 대한 관심 역시 낮은 수준이다. 평생교육 분야에서 수업 수강자들을 중심으로 친목, 취미 중심의 비공식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고 시민교육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으나(박상옥, 2018), 사회자본 이론가들이 가정했던 민주적 가치와 규범의 학습, 신뢰 확산 등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한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들은 평생교육,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자원봉사센터 등과 같은 중간지원조직에 의해 위로부터 증재되거나, 트레바리와 같은 영리 플랫폼에 의해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비공식 소모임들과 적극적으로 연계되지는 못하고 있다.

## 2. 결사체-자원봉사-시민교육의 연결 회복: 적극적 시민성

자원봉사 분야 실무자들은 개인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자원봉사에 엮이기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더 이상 정



기적, 지속적으로 조직이 필요로 하는 특정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자기 지향적인 이유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한편, 강력한 조직적 연대는 ‘느슨한 연결’(Wuthnow, 2002), 관심과 상황에 따라 시시때때로 변하는 소속감 등으로 대체되고 있다.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시민사회단체 멤버십 혹은 자원봉사단체 밖에서 하려고 한다.

느슨한 멤버십 활동, 전반적인 자원봉사 참여 감소, 사회정의 관점이 나 더 넓은 사회구조적 관점의 공공문제 인식과 동떨어진 일시적·체험적 자원봉사 요구에 직면하여, 일상적인 시민적 삶이 가지는 시민교육적 성격을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 ‘적극적 시민성’ 개념이다. 이는 EU와 미국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시민,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영향력 있고 참여적인 시민을 목표로 추진하는 민관협력 차원의 시민사회 회복 시도이다. 적극적 시민성(active citizenship) 개념은 법을 잘 지키고 좋은 이웃이 된다는 의미에서의 좋은 시민이나, 시민으로서의 권리 인식에 기초한 투표와 같은 소극적 참여를 넘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인식과 지역사회 멤버십을 가지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여 활동을 부각시키는 것으로서 주로 (평생)교육 영역에서 실천 지향적으로 사용되고 있다(Mascherini and Manca and Hoskins, 2009). 이는 개인보다는 전체 공동체의 공공선에 기여하는 활동, 특히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을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다. 적극적 시민성 개념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사회자본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사회자본은 연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민들 간의 연결은 참여로 이어지며, 이 참여는 시민적 가치와 규범을 강화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 사회자본의 약화라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부활을 위한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겼고,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멤버십과 자원

봉사, 시민교육 간의 약해진 고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잇고자 한 것이다. 이는 사회문제에 대한 구조적 관점과 사회정의에 기반을 둔 자원봉사 실천을 유도하는 집단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된다(Jochum and Pratten and Wilding, 2005).<sup>1)</sup>

EU 차원에서 적극적 시민성 관련 지표를 개발하는데 기여한 Hoskins and Mascherini(2009)에 따르면, 적극적 시민성은 “시민사회, 공동체, 정치적 생활에의 참여로서, 상호 존중과 비폭력에 의해 특징지어지며, 인권과 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정의된다. 또한 민주적 가치의 지식 교육만을 강조하거나, 자원봉사와 같은 실천 활동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이분법을 벗어나, 시민 교육과 공동체 봉사의 책임, 지역사회 멤버십 활동 간의 연결을 새로운 방식으로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자원봉사 분야에서 적극적 시민성 관점의 도입은 사회문제의 구조적 인식이 결여된 전통적인 노력형 자원봉사를 넘어서려는 시도로 구체화된다. ‘자원봉사는 적극적 시민성의 핵심적 구성요소이지만, 모든 자원봉사 활동이 적극적 시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적극적 시민성은 사회구조적 관점과 변화를 지향하는 자원봉사를 추구한다. 자원봉사는 민주적 가치와 공동체가 함께 추구하는 공공성의 비전 선상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원봉사 관리 행정과 실무자 역량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한다.

적극적 시민성의 관점에 따르면, 자원봉사는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특정 분야에서 갈고 닦은 높은 수준의 능력과 개별적 관심을 적극 활용하여 다른 사람을 돕도록 독려하되 사회구조

1) 한국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globally connected, locally engaged”라는 모토를 가진 유럽의 적극적 시민성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있는데, 글로벌 이슈,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지식의 확대-지역사회 실천-전문성 학습을 결합하여 혁신적이고 참여적인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사회혁신 지향의 정책 방향에도 부합한다.

적 관점과 사회정의에 대한 시민교육과 결합하고 시민 주도성을 강화하는 방식의 집단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의 자원봉사는 ‘오래된 사회문제에 대한 신선하고 혁신적인 해결 방안’일 수 있다(Tisch, 2010). 이를 위해서는 자원봉사 관리(조직화)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자원봉사 관리자는 수혜자대신 자원봉사자에 집중하며, 개별 자원봉사자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어떤 전문성 집단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면서도 동시에 이들의 관심과 능력을 지역사회 실천으로 효과적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이를 지원하는 행정 체계 차원의 변화도 요구된다. EU에서는 자원봉사 파견 기관들을 위한 실무 가이드를 제공하여 자원봉사자 대상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학습과 비판적 개입을 지원하고 심화하기 위한 실무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중요하게 다룬다(Jochum and Pratten and Wilding, 2005; Lawson, 2001). 자원봉사자들이 불평등과 불공정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해 이해하고 사회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는 실무자의 시민적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자원봉사 실천 현장에서도 지난 10여 년 동안 ‘자원봉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한국의 자원봉사 참여 동기에 대한 연구 조사를 보면(주성수·정희선·윤영미, 2017), 2014년에는 여가시간 활동, 다양한 경험, 스스로 위로 받기 등 도구적인 동기 요인이 상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사회문제 해결,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 등의 시민의무적 동기가 그 뒤를 이었다. 반대로 자기 계발(취업, 승진 등), 단체봉사활동(직장, 대학 등) 등이 가장 낮았다. 그런데, 2017년에는 사회문제해결이 상위를 차지하였고,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 돕기 등과 같은

시민의무적 동기가 그 뒤를 따랐다. 여가시간 활용, 다양한 경험 등의 도구적 동기 요인들은 2014년에 비해 순위가 떨어졌다. 이는 한국의 자원봉사에서도 사회문제해결, 적극적 시민성을 강조하는 위로부터의 자원봉사 조직화 노력, 자원봉사 관리 체계의 변화를 위한 시도가 이루어져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 제도적으로 개인화된 자원봉사 관리: 멤버십 관리와 프로그램 관리의 하이브리드

적극적 시민성 개념이 새로운 민관협력 시도가 지향하는 이념을 나타낸 것이라면, 새로운 자원봉사 조직화 혹은 관리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하이브리드 조직화’라고 할 수 있다. 개인화되고 일시적인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이들의 활동을 엮는 집합적 활동을 조직화함으로써 큰 사회적 임팩트를 낼 수 있도록 위로부터 기획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방식이다.<sup>2)</sup> 이는 유럽 전통의 멤버십 관리와 미국식의 프로그램 관리를 결합한 방식으로, 개인화 시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것과 같이, 미국과 유럽 NPO 섹터의 핵심적인 차이는 자원봉사자의 규모가 아니라 자원봉사가 조직화 혹은 관리되는 방식이다(Mejis and Karr, 2004). 자원봉사 조직화 혹은 관리 방식에서, 유럽은 멤버십 관리 전통을, 미국은 서비스 전달 전통을 가지고 있다. 즉, 유럽에서는 자원봉사가 공식·비공식 조직의 멤버십에서 출발한다. 사람들이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결정한 후

2) 이 글에서 하이브리드 조직화 혹은 관리라는 이중적 표현을 쓰는 이유는, 자원봉사자의 노력이 집단적 힘이 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는 조직화이지만, 위로부터의 재정적·정치적 개입 속에서 중간지원조직의 ‘관리’를 필수 요소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 일을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방식으로 자원봉사가 조직화되고 수행되어왔다. 반면, 미국 전통에서는 조직(예를 들어 사회복지기관, 시민사회단체)이 정한 과업에서 시작하여, 그 일을 위해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자원봉사가 조직화되었다(Skocpol, 2004). 전자는 민주주의를 위해 강력하며, 후자는 서비스 전달에 효과적이다.

시민교육, 자원봉사 활동이 시민사회조직 멤버십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던 유럽 전통에서, 시민참여는 곧 적극적 멤버십과 동의어에 가까웠다. 적극적 멤버십이란, 특정 시민사회단체의 공식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조직에 혹은 그 조직을 통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럽 전통에서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공식 멤버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멤버십, 자원봉사, 시민 교육이 하나로 통합되어 작동하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2009년 현재, 87.7%의 자원봉사자가 시민사회단체의 멤버였으며, 자신이 멤버인 단체를 위한 자원봉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멤버십과 자원봉사활동이 연계된 적극적 멤버십의 존재를 보여준다(Hvenmark and von Essen, 2010). 그러나 이런 유럽에서도 개인화와 함께 기존과 같은 방식의 적극적 의미의 멤버십 참여가 서서히 감소하면서, 잘 제도화되어 있던 멤버십-자원봉사-시민교육 간의 연계에 균열이 시작되었다(Hustinx, 2010; Lichterman, 2006). 실제로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멤버십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정기적 자원봉사가 감소하였고, 대신 자원봉사자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일회적·체험적 봉사 프로그램들이 위로부터 기획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변화하는 개인들의 욕구에 적응하고자 한 제도 차원의 대응 시도였다. 대응의 첫 단계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다원화하는 욕구에 맞춰 주로 생애주기별로 자원봉사자를 조직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였지만, 점차 '하이브리드 조직화' 경향을 보인다

(Hustinx, 2010: 170). 한편으로는 공식 멤버십 중심의 자원봉사 활동 대신 유연하고 자기 지향적인 방식으로 시민사회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개인의 등장에 대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산발적으로 전개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전체 사회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위(제도)로부터의 요구에도 부합해야 했기 때문이다. Hustinx(2010)은 이러한 흐름을 “제도적으로 개인화된 자원봉사(institutionally individualized volunteering)”라고 명명한다. 풀뿌리 운동 차원에서 아래로부터 작동하던 멤버십 중심의 집합적 자원봉사와 다르게, 느슨한 연결을 통해 참여하고자 하는 흩어진 개인들을 관심과 주제에 따라 다시 모아서 여러 일화적(episodic)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지원하면서 전체적으로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가진, 위로부터의 조직화 방식이다. 이런 자원봉사 조직화 혹은 관리는 전문적인 자원봉사 지원 기관에 의해 추진되고, 이 자원봉사 지원 기관은 -한국의 자원봉사센터처럼- 대부분 프로그램 펀딩을 정부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제도화’되어 있다. 개인의 다양한 관심과 욕구에 부합하는 개별화된 프로그램들이 여러 중간지원조직을 매개로 한 거버넌스 제도 속에서 기획, 추진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일화적 봉사 프로그램 참여자의 지속 참여율을 높이고, 산발적으로 전개되는 프로젝트들을 전체로 묶어내어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자원봉사 전문 기관의 역할과 실무자의 새로운 역량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제도적으로 개인화된 자원봉사”에 대한 우려도 작지 않다. 특히 단기·일화적 자원봉사는 풀뿌리 멤버십 중심의 자원봉사가 가졌던 시민교육적 성격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개인 봉사자가 자신이 원할 때만 단기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플러그-인(Plug-in) 방식의 자원봉사는 자족적인 자원봉사자들의 느슨하고 우연적인 집단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때 자원봉사자들은 서로 협

력적으로 함께 일하기보다는 ‘그저 나란히 일’한다(Eliasoph, 1998; Lichterman, 2006). 플러그-인 자원봉사에서 자원봉사자들 간의 관계, 자원봉사자-수혜자와의 관계는 짧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개인적인 교제가 없는 관계라는 의미에서- 비인격적인 채로 유지된다. 또한 참여 시민을 탈정치화하기 쉽다. 활동의 분절과 탈정치화의 문제는, 참여 민주주의와 사회 변화 지향이라는 맥락에서 자원봉사의 시민교육적 성격을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남긴다(Hustinx, 2010; Hustinx and Meijs, 2011). 또 다른 문제는 자원봉사가 풀뿌리 차원에서 아래로부터 조직화되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 제도 안에서 제도적으로 조직화 혹은 관리됨에 따라, 자원봉사의 내적 가치가 손상되고 관료적 행정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하이브리드 자원봉사 세팅에서는 엄밀한 회계 도구들과 지속적인 서류작업이 요구되는데, 이 프로그램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주체들(국가, 기업, 재단 등)이 투명한 관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관료적 행정에서의 종속 위험은 근본적으로 정부 개입과 자발적 시민 조직 사이의 구조적 긴장 관계에서 비롯된다. 정부와 중간지원조직, 그리고 일반 주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재정 및 권력 의존적 관계, 민관협력 하 정부-중간지원조직 간 계약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전문성 및 성과 압박과 자원봉사의 자발성 사이 긴장 등이 그것이다. 또한 그저 막연히 비영리단체가 수행하면 혁신적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는 일종의 신화가 확산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Schmid, 2003). 자원봉사 실천은 점점 더 행정화되고, 자원봉사자들은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을 넘어서는 서류작업과 전문적 혁신성까지 요구받게 된다(Eliasoph, 2009). 더욱이 자원봉사 관리 조직들이 단기적인 민간위탁 계약 관계에 놓이게 되면, 자원봉사자들은 더욱 단기적이고 결과물(performance-based) 중심의 프로젝트를 위해 모집되기 시작한다. Bode(2006: 352)는 이를 자원봉사자들과 기부자들을 놓고 여러 자원봉사 관리 조직들이 경쟁하

는 소위 “시민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sup>3)</sup>

한국의 자원봉사 참여 경로에 대한 조사를 보면(주성수·정희선·윤영미, 2017: 26-27), 2017년 ‘누군가의 요청’이 42.4%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반면, 이 기간 동안 ‘단체/조직/직장’을 통한 참여 경로는 다소 감소하였다. 자신이 공식적으로 소속된 단체보다는 자신이 믿을만한 혹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의 비공식적 관계를 통해 자원봉사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는 자신이 활동하는 조직, 수혜 기관, 자원봉사센터 등과 같은 중간지원기관과의 관계에서도 이전에 비해 더 많은 자율성과 자유를 요구한다(이경훈, 2019). 기업 임직원 자원봉사의 경우도, 2000년대 초 사회공헌 활동이 도입되던 당시 위로부터의 ‘동원’이 가능했던 것과 크게 달라졌다. 학교, 기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봉사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소속되어서 활동하는 멤버십 조직과의 관계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시간이나 활동 내용에 있어 유연함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개별화된 시민의 욕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특정 운동 가치의 공유를 강하게 요구하는, 즉 적극적 멤버십을 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점점 더 자원봉사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 결과 자원봉사 전문 중간지원기관인 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자원봉사센터 역시 개인 단위의 신청을 받아 지역사회 수요처에 단순 매칭하던 전통적인 관리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3) 자원봉사 관련 조직들 간에 참여자를 놓고 벌어지는 경쟁 이면에는, 자원봉사 시민 되기의 과정이 있다. 김수미(2016)는 신자유주의 통치 하에서 청년들은 자기 생존에 대한 독자적 책임자이자 시장국가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주체로 구성되는데, 이 과정의 중심에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와 제도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저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시민성과 사회적 관계가 재구성되는 국면에 도입했다고 보면서, 이 시기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제도화를 둘러싸고 이루어진 공적 담론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떻게 ‘자원봉사 시민(volunteer-citizen)’ 되기가 구성되었는지를 분석한다.



것을 절감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원봉사 체계의 변화를 논의할 때, 적극적 시민성은 핵심적인 원칙이 될 수 있다. 시민교육과 지역사회 실천의 연계, 시민 간 연결과 신뢰 구축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는 오랫동안 널리 공유되던 자원봉사의 내적 가치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개인화와 복지혼합이라는 거시 사회학적, 제도적 변화 속에서 적극적 시민성이라는 규범적 지향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자원봉사에 대한 제도적 개입과 지원 속에서, 자원봉사 관리 실무자들은 정부(및 각 부처), 시민단체, 기업, 학교 등 서로 다른, 잠재적으로 갈등적인 제도적 논리들을 서로 연결하면서, 동시에 참여 자원봉사자의 개별화된 욕구에 대응해야 한다는 조화되기 어려운 이중적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은 보통 ‘(펀딩)정부부처-중간지원기관-활동단위로서의 소모임-참여 개인’ 등과 같은 방식으로 다층적으로(multi-level) 조직화된다. 이를 통해 탑-다운 방식으로 자원봉사 실천의 기회가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실천 프로그램들은 서로 다른 제도적 논리(예를 들어 정부 관료 논리, 기업의 논리, 각종 중간지원조직의 논리 등)에 따른 복합적 요구를 만족시켜야만 한다. 서로 목표와 작동 방식이 다른 여러 참여 기관들, 여러 개별화된 참여자들을 집단으로 묶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 서로 다른 차원들의 참여자들을 서로 잇고 신뢰를 구축하려는 일련의 노력과 장치들이 필요하다. 이는 중간지원조직 실무자들의 시민적 역량이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실무자들은 ‘플러그인’ 참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정교하게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획과 실행, 평가 전 과정에서 거시적 차원의 제도적 힘과 개인 자원봉사자의 요구 사이에서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 자원봉사 관리자는 때로 외부의 제도적 논리의 영향력을

걸러 내면서, 자원봉사자들의 요구를 대변하기도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진행 과정과 내용을 모든 참여 수준의 모든 참여 주체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와 같은 핵심 원칙을 준수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Eliasoph, 2009). 이 원칙 하에 분산된 참여 주체들이 일련의 관리된 흐름 속에서 자신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 자원봉사 관리자는 이런 점에서 기획자이자 훈련가여야 한다.

### III.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지역 소모임 활성화 사업」의 특징과 자료 분석 방법

#### 1.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소모임 활성화 사업

##### 1) 사업의 등장 배경

자원봉사센터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시군구 단위로 설치·운영되어 자원봉사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일정 정도 역할을 했다. 서울에도 25개 자치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그동안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 센터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여러 가지로 제기되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사회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원봉사센터나 공식 플랫폼을 통해 자원봉사에 참여했다는 자원봉사자의 비율은 지난 10여 년 동안 정체되어 있다(주성수·정희선·윤영미, 2017: 26-27). 그 사이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2), 「협동조합기본법」(2012) 등이 제정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서 다양한 시민참여의 기회와 크고 작은 지역사회 모임들이 '생산'되었고, 평생교육기관, 주민자치센터 등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주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개인화

와 시민참여 거버넌스 제도의 확대라는 배경 속에서, 자원봉사센터는 새롭게 부상한 이들 주민 활동 모임들을 포괄하는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였다(최일섭·공화숙, 2016).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여,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의 활동 영역 및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자, 2013년~2015년까지 「민간 풀뿌리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그 대상을 어느 정도의 조직 규모와 역사를 가진 법인 혹은 비영리민간단체들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주도적 기획과 실행 능력을 가지지 못한 소규모 주민모임들의 역량 강화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또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풀뿌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직접 공모사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지역 내 소규모 주민모임과 상호작용하는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지 못하였다. 이에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가 직접 자치구 내 취미/관심 중심의 느슨한 소모임을 접촉하여 자원봉사 실천으로 유도하되, 동시에 이들을 조직화하는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반적인 시민의식의 향상, 그리고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등과 같은 시민참여 거버넌스 사업이 강조하는 시민교육의 요소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 2) 사업의 목적과 구조

2016년 시범적으로 실시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지역 소모임 활성화 사업」은 지역 사회 내 특정 관심 혹은 재능을 공유한 공식·비공식 소모임을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가 직접 발굴하여, 집합적 자원봉사 실천을 위한 새로운 소모임을 결성한 후, 이 소모임 단위로 각 모임 구성원의 특성에 부합하는 자원봉사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도록 조직화하는 실험적 방식의 공모 사업이다. 공식 비영리단체가 아닌 소모임을 대상으로 하였고,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이들 모임을 대상으로

직접 공모하는 대신, 지자체 자원봉사센터가 지역 내 모임을 발굴하여 자치구 센터 단위로 공모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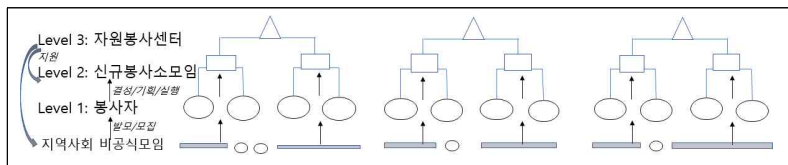
이는 자원봉사센터의 기존 관리 방식과는 차별적인 시도였다.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오랫동안 지역 주민 개인을 상대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하여 수혜기관으로 배치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조직과 사업이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거나 진학, 취업 등의 도구적 동기로 필요성을 느끼는 개인들이 자원봉사를 신청하면, 그들을 지역사회 수요처에 배치하고 수요처 일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 일에 관리의 초점을 맞추었다.<sup>4)</sup> 「지역 소모임 활성화 사업」은 이런 전통적인 관리 방식이 개인의 개별화된 욕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시민교육적 효과도 낮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관심과 취미를 기반으로 한 느슨한 형태의 소모임을 통해 협력적으로 자원봉사를 기획하고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원봉사의 시민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비슷한 관심과 취미를 기반으로 한 여러 모임들을 배출하고 있지만 자원봉사를 일차적 목적으로 하지 않는 평생교육, 협동조합,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등 시민 참여 거버넌스 분야의 관련 기관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관심 있는 모임들의 신청을 받아 지역사회 자원봉사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소모임을 구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공공성을 높이고 참여 주체들의 시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직접 운영하는 대신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가 이들 모임과 직접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신청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각 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소모임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먼저, 자치구 내 다양한 공식 멤버

4) 물론 가족, 기업 임직원, 학생 등 집단 단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는 했지만, 이는 사회본론이 가정하는 낯선 이웃 간의 친밀한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적 모임은 아니었다.

십/비공식 취미 모임과 접촉하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공식적인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모임 단위 참여 신청을 받는다. 소모임 규모는 15명 이내로 해야 한다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공모 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 단위 소모임 구성을 완료한다. 공모 사업 결과, 기존에 이미 결성되어 있는 모임만으로 사업 단위 소모임이 형성된 경우도 있었고(‘기존결성’ 유형), 기존의 모임 구성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규모가 너무 작을 경우 일반 개인들의 신청을 추가로 받아 하나의 사업 단위 소모임이 형성되기도 했으며(‘일부기존결성-일부신규모집’ 유형), 마지막으로 여기 저기 모임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한, 두 명씩 모여 완전히 새로운 구성원으로만 사업 단위 소모임이 형성된 경우도 있었다(‘신규결성’ 유형). 이렇게 구성된 사업 단위 소모임은 약 6개월 동안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실무자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직접 기획한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각 자치구 사정에 따라 3월~5월 중 참여 신청 소모임을 대상으로 사업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고, 마찬가지로 각 자치구별로 10월 중 종결 모임을 가졌다.

「지역 소모임 활성화 사업」은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하이브리드 자원봉사 관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멤버십 관리와 프로그램 관리의 결합, ‘정부(펀딩)-중간지원조직(자원봉사센터)-사업 단위 소모임-참여 개인’이라는 다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아래 <그림1> 참조).

<그림 1> 소모임 활성화 사업 관리의 다층(multi-level) 구조



첫 번째 수준은 봉사자인데, 참여 개인은 약 181명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7명(3.9%), 여성 174명(96.1%)으로 여성이 대다수이다. 연령과 교육수준별 분포는 다음 <표1>과 같다.

<표 1> 사업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령	빈도	%	교육수준	빈도	%
2,30대	9	5.0	중졸이하	13	7.3
40대	69	38.5	고졸	41	23.2
50대	48	26.8	대학재학중	4	2.3
60대	53	29.6	대졸	101	57.1
70대	7	3.9	대학원졸	18	10.2
전체	179	100.0	전체	177	100.0

두 번째 수준은 사업 단위 소모임인데, 최종적으로 결성 완료되어 사업 참여의 단위가 된 소모임은 총 33개였다. 소모임의 유형은 크게 3가지였다. 첫째, 이번 사업 이전에 이미 자체적으로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던 소모임(이하 ‘기존결성’ 유형), 둘째, 이번 사업 이전에 이미 자체적으로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던 소모임 구성원 일부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새로 모집된 자원봉사자 일부가 함께 활동한 소모임(이하, ‘일부기존결성-일부신규모집’ 유형) 셋째, 이번 사업을 계기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가 주도가 되어 비슷한 관심/취미 중심으로 새롭게 결성한 소모임(이하, ‘신규결성’ 유형)이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새로 결성된 ‘신규결성’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두 유형에 대해, 기존 모임 지속기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2>와 같다. 전체 25개 소모임 중 15개의 소모임이 이에 해당하였는데, 이 중 기존 모임 지속기간은 4년 이상 6개, 2-4년 이상 3개, 2년 미만 6개로서, 비교적 오래된 모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새롭게 구성된 사업 단위 소모임 구성원 수는 평균 13.29명이었다.

〈표 2〉 소모임의 일반적 특성

소모임 유형	빈도		기존 결성 소모임 중 모임 지속 기간	빈도	
	빈도	%		빈도	%
기존 결성	6	25.0	2년 미만	6	40.0
일부기존결성 일부신규모집	9	37.5	2년-4년	3	20.0
신규 결성	9	37.5	4년 이상	6	40.0
전체	24 <sup>주)</sup>	100.0	전체	15	100.0

주) 무응답=1

세 번째 수준은 사업의 관리 주체였던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이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공모 사업에 신청하여, 자신의 자치구 내에서 성인 대상 소모임 활성화 사업을 관리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총 15개였다. 센터별로 1-2명의 실무자가 이들 소모임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였다.

## 2. 사업의 시민교육적 효과

### 1) 분석 자료와 방법

「지역 소모임 활성화 사업」의 시민교육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2016년에 이 사업 진행과 병행하여 진행된 연구에서 수집된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이다. 위 〈그림1〉에서 제시한 이 사업 구성의 세 가지 수준 분석으로부터 출발하여, 본 연구는 당시 수집되어 사용 가능한 두 가지 데이터를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첫 번째 수준의 자료는 자원봉사자의 시민적 태도 사전-사후 점수이다. 전체 참여자인 181여명 중 사전-사후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83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중앙 단위의 공모 사업이기는 하지만,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가 이 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역 내 참여 소모임을 발굴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하는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사업 시작 일정이 다를 수밖에 없었고, 사업 진행 중 그만두거나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 종료 후 사전-사후 설문에 모두 응답한 사례를 최종 선별한 결과, 전체 참여자의 약 46%인 83사례였다. 사전 조사는 2016년 3월~5월 중 자치구 센터별로 이루어진 소모임 오리엔테이션에서 응답자 직접기입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수거되었다. 사후 조사는 2016년 10월 중에 이루어졌는데, 소모임별 평가회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원이 직접 방문하여 자기 기입 방식으로, 별도의 종결 모임이 없는 경우에는 자치구 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설문 응답 후 우편발송 방식으로 수거되었다. 두 번째 수준의 자료는 이 사업의 관리를 담당한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실무자의 시민적 태도 점수이다. 이 자료는 10월 중 이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일회 수집되었다. 두 가지 수준의 자료를 개인 수준을 기준으로 통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응답 자원봉사자의 성별은 남성 6명(7.2%), 여성 77명(92.8%)으로 여성이 압도적 다수였다. 그 외 응답 자원봉사자의 특성은 다음 <표3>과 같다. 응답 센터 실무자의 일반적 특징은 <표4>와 같다.

〈표 3〉 응답 자원봉사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		빈도	%
30대	4	4.9			
40대	23	28.0	중졸이하	7	8.6
50대	27	32.9	고졸	20	24.7
60대	26	31.7	대학졸	49	60.5
70대	2	2.4	대학원졸	5	6.2
전체	82	100.0	전체	81	100.0



〈표 4〉 응답 센터실무자의 일반적 특성

직급	빈도	%	성별	빈도	%
팀장	1	7.1	남성	4	26.7
			여성	11	73.3
주무관	1	7.1	연령	빈도	%
임기제행정9급	1	7.1	20대	4	26.7
행정8급	3	21.4	30대	9	60.0
교육코디네이터	3	21.4	40대	2	13.3
행정7급	2	14.3	근무기간	빈도	%
과장	1	7.1	12개월이하	5	33.3
주임	1	7.1	13개월-36개월	4	26.7
직원	1	7.1	37개월이상	6	40.0
전체	14 <sup>주)</sup>	100.0	전체	15	100.0

주) 무응답=1

## 2) 분석 변수: 시민적 태도(civic attitude)

시민적 태도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를 통한 학습(service learning)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참고한 시민적 태도 지표는 Moely and Mercer and Ilustre and Miron and McFarland(2002)이 개발한 CASQ(Civic Attitudes and Skills Questionnaire)이다. Moely et al.(2002)은 시민행동(Civic Action), 상호작용 및 문제해결 스킬(Interpersonal and Problem-Solving Skills), 공공문제인식(Political Awareness), 리더십 스킬(Leadership Skills), 사회적 정의 태도(Social Justice Attitude), 다양성 태도(Diversity Attitude) 등 6개의 하위요인, 총 45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학교 서비스 러닝 평가를 위해 개발된 이 지표는 수업과 연계된 자원봉사 효과를 지식과 스킬, 태도의 차원에서 평가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성인 대상의 단기 간·체험적 자원봉사 실천이라는 프로그램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문제인식과 태도 관련 하위 요인만을 참고하였다. 학교 수업과 연계한 중기 봉

사활동은 사회 문제해결 역량과 리더십 스킬의 개선에 기여하도록 디자인되지만, 이번 연구의 대상이 되는 소모임 기반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단기간·체험적 성격의 봉사활동으로서, 리더십 등의 역량보다는 공공 문제에 대한 관심의 확장과 가치 혹은 태도의 변화 여부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문제인식, 사회적 정의, 다양성 태도 설문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의 성인 자원봉사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공공문제인식(political awareness)은 지역적,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혹은 정치적 이슈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사회정의(social justice attitude)는 개인의 권리나 가능성, 자원들의 상대적 분배가 정당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져 있는 사회적 상태를 지향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다양성 태도(diversity attitude)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다양성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 각 설문 문항에 대한 측정방식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알파 값은 <표5>와 같다.

〈표 5〉 시민적 태도 측정 지표

문항	Cronbach's 알파	
	봉사자 사전 (n=83)	봉사자 사후 (n=181)
공공 문제 인식	1. 나는 우리사회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	
	2. 나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다.	
	0.910	0.892
	3. 나는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다.	
	4. 나는 나의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사회 정의	5. 나는 나의 지역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다.	
	1. 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충분한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가난한지 이해할 수 없다.R	
	0.770	0.753
다양성	2. 불운과 실패는 각 개인의 책임이다.R	
	3. 우리나라 전체 사회적 환경보다는 그 문제의 당사자 개인에게 집중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R	
다양성	1. 사회적·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배경 출신의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그 집단은 효과적으로 움직이기 어렵다.R	
	0.689	0.589
시민적 태도 <sup>주)</sup>	0.656	0.700

주) 시민적 태도는 공공문제인식, 사회정의, 다양성 점수를 모두 합산한 점수임.

## 3) 결과

## ① 자원봉사자의 시민적 태도 향상

〈표 6〉 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정

	사전 평균	사후 평균	평균 차이	표준 오차	t	자유도	p-value
시민적 태도	8.702	9.134	0.432	0.136	3.172	70	0.001**
공공문제인식	3.479	3.644	0.164	0.081	2.019	76	0.024*
사회정의	2.337	2.458	0.119	0.062	1.934	78	0.028*
다양성	2.949	3.043	0.055	0.075	0.730	78	0.234

주) \*:  $p < .05$  \*\*:  $p < .01$  \*\*\*:  $p < .001$

「지역 소모임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전후로 자원봉사자의 시민적 태도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표6〉 참조). 자원봉사자의 시민적 태도는 8.702에서 9.134로, 0.432의 향상을 보였으며, 이 차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하위요인별로 보면, 공공문제인식과 사회정의에서의 향상이 각각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성 태도 향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 ② 자원봉사센터 실무자의 시민적 태도가 자원봉사자의 시민적 태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자원봉사자가 속한 소모임을 관리한 센터실무자의 시민적 태도가 그들이 관리한 자원봉사자의 시민적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였다. 센터실무자 시민적 태도, 공공문제인식, 사회정의, 다양성 등을 각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높음, 낮음 두 개의 집단으로 리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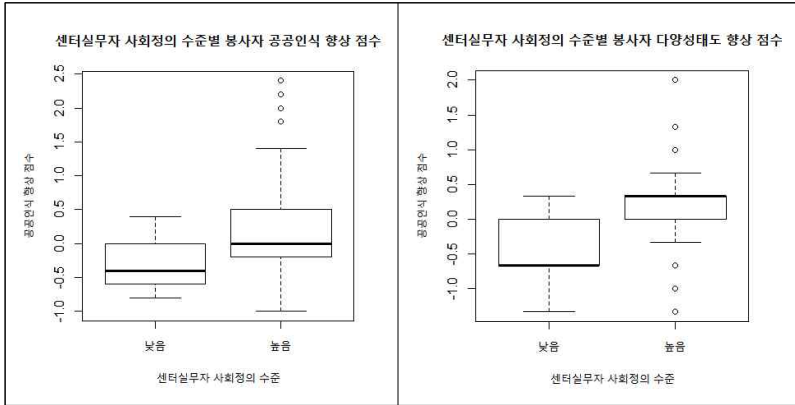
당하여 두 집단 간에 개인 자원봉사자의 태도 향상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민적 태도 점수에는 센터실무자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표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자원봉사자의 공공문제인식과 다양성 태도 향상 평균 점수에서 센터실무자의 사회정의 태도에 따른 두 집단 간에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사회정의 태도가 높은 센터실무자의 관리를 받은 소모임에 속해서 활동한 자원봉사자는 그렇지 않은 센터실무자의 관리를 받은 소모임에 속해서 활동한 자원봉사자에 비해 공공문제인식 향상 점수와 다양성 태도 향상 점수가 높다. 사회정의는 개인의 권리나 가능성, 자원들의 상대적 분배가 정당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져 있는 사회적 상태를 지향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빈곤 등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구조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련된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이 소모임 단위로 서로 협력하여 자원봉사를 기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구조적 관점을 가진 센터실무자의 지원이 있으면, 자원봉사자가 공공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관점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포용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함의한다.

<표 7> 센터실무자의 사회정의 태도별 봉사자 시민적 태도 향상 차이

	센터실무자 사회정의		평균 차이	표준오차	t	자유도	p-value
	낮음	높음					
봉사자 공공문제인식 향상	-0.300	0.203	0.503	0.204	2.460	7.519	0.021*
봉사자 다양성 향상	-0.444	0.164	0.608	0.181	3.357	11.161	0.003**

주) \*:  $p < .05$  \*\*:  $p < .01$  \*\*\*:  $p < .001$ .

〈그림 2〉 박스 플롯



#### IV. 결론

자원봉사의 조직화 혹은 관리 방식은 역사적 경로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인화의 진전과 함께, 유럽 전통의 적극적 멤버십 중심 자원봉사 조직화와 미국의 프로그램 중심 자원봉사 관리가 융합되는 경향이 보편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이브리드 자원봉사 조직화’는 분산된 개인의 자원봉사 참여 기회가 정부 차원의 재정과 전문적인 중간지원 기관에 의해 생산된다는 의미에서 ‘제도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런 점에서 아래로부터 이루어지는 풀뿌리 지역운동과는 구분된다. 한국의 자원봉사 관리도 예외가 아니다.

이 연구는 2016년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지역 소모임 활성화 사업」의 의의와 구조를 “제도주의적으로 개인화된 자원봉사”로의 변화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즉, 이 사업은 개인-소모임-자원봉사센터라는 다차원 상호작용을 통해 자원봉사의 시민교육적 성격을 강화하고, 멤버십

관리와 프로그램 관리를 융합한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할만 하다. 한국에서는 과거 국민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사회단체 멤버십이 곧 자원봉사를 비롯한 다른 정치 참여의 통로 역할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시민의식의 전반적인 향상과 개인화에 따라 이러한 경향에 변화가 생겼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자원봉사 참여율이 정체되거나 다소 감소한 것은 이러한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자원봉사센터는 전통적인 자원봉사 참여 풀(pool)을 넘어서, 새롭게 등장하는 개인, 즉 공공문제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개별화된 욕구와 참여 방식을 선호하는 개인으로 그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도전에 직면한다. 이런 배경에서, “적극적 시민성”이라는 실천 목표와 자원봉사의 하이브리드 조직화를 조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 EU와 미국의 경험은 한국에서도 의미 있는 준거가 될 수 있다. 과연 이렇게 생산된 “제도적으로 개인화된 자원봉사” 기회에의 참여가 시민적 태도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가? 혹은 이러한 시도가 개인들의 참여를 묶어 거대한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아직 열려 있다. 다만, 위로부터의 기획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 관리 실무자의 역량, 특히 시민적 태도의 중요성은 재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탐색적 차원에서 「지역 소모임 활성화 사업」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 사업의 시민교육적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이 사업을 통해 참여 자원봉사자들의 시민적 태도가 향상했으며,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자원봉사 실무자의 사회정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경험적 통계 분석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실제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얻어진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생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다양한 변수를 다루지 못했고 사례수도 적어서 다차원 상호작용에서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센터 실무자와 관련된 핵심 변수만을, 그것도 기초 통계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차원 중 하나인 소모임 단위의 변수들은 전혀 검토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소모임 형태, 즉 기존결성, 기존결성 신규모집, 신규결성 등의 형태에 따라, 혹은 소모임 운영상의 주요 변수들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시민적 태도 향상에 영향이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이브리드 조직화에 의한 제도적으로 개인화된 자원봉사가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이렇게 생산된 참여 기회의 시민교육적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수미(2016). “‘자원봉사 시민(volunteer-citizen)’ 되기-신자유주의 생존윤리와 청년세대.” 『언론과 사회』, 24(3): 128-177.
- 김태룡·안희정(2009).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영향분석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9(3): 197-218.
- 김혜경(2017). “가족 이후의 대안적 친밀성- 비혼 청년층의 공동주거 사례를 통해 본 돌봄과 우정의 공동체 실험.” 『한국사회학』, 51(1): 155-198.
- 박상옥(2018).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과 가능성 탐색.” 『NGO 연구』 13(3): 1-36.
- 박선하·박신혜·이희영(2015). “성남시 고등학생들의 봉사 및 기부와 민주시민 의식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5): 295-306.
- 심성보(2008). “자원봉사활동을 넘어서는 봉사학습과 시민교육의 홀리스틱 결합 모색.”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12(3): 1-15.
- 심성보(2017).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학논집』 67: 93-122.
- 원미순·박혜숙(2010).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7(3): 225-246.
- 이경훈(2019). “자원봉사자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관한 연구: 개인 자율성, 개인 역량, 조직 역량을 중심으로.” 『글로벌사회복지연구』, 9(1): 25-52.
- 주성수·정희선·윤영미(2017).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 최일섭·공화숙(2016). “자원봉사센터의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기술적 연구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7: 91-110.
- 한국통계청. 사회조사. (<http://kostat.go.kr>)
- 홍찬숙(2017). 『개인화: 해방과 위협의 양면성』. 서울대출판문화원.
- Beck, Ulrich(1997). "Einleitung: Individualisierung und Integration — Versuch einer Problemskizze." Ulrich Beck and Peter Sopp(eds), Individualisierung and Integration. Neue Konfliktlinien und neuer Integrationsmodus?, 9-19. Opladen: Leske + Budrich.
- Beck, Ulrich, and Elisabeth Beck-Gernsheim(2002). Individualization: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Sage.

- Bode, Ingo(2006). "Disorganized welfare mixes: Voluntary agencies and new governance regimes in Western Europe."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6(4): 346-359.
- Eliasoph, Nina(1998). *Avoiding Politics: How Americans Produce Apathy in Everyday Lif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liasoph, Nina(2009). "Top-down civic projects are not grassroots associations: How the differences matter in everything life."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20(3): 291-308.
- Hoskins, Bryony and Massimiliano Mascherini(2009). "Measuring Active Citizenship through the Development of a Composite Indicator." *Social Indicators Research*, 90: 459-488.  
DOI:10.1007/s11205-008-9271-2.
- Hustinx, Lesley and Lucas C.P.M. Meijs(2011). "Re-embedding volunteering: In Search of a new collective ground." *Voluntary Sector Review* 2(1): 5-21.
- Hustinx, Lesley(2010). "Institutionally Individualized Volunteering: Toward a Late Modern Re-Construction." *Journal of Civil Society* 6(2): 165-179.
- Hvenmark, Johan and Johan von Essen(2010). "A Civic Trinity in Transformation? -Changing Patterns and Perspectives on Membership, Volunteering, and Citizenship in Swedish Civil Society." Paper submitted to the ni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ird Sector Research, Kadir Has University, Istanbul, Turkey, July7-10. (ISTR Conference Working Paper Series: Volume VII)
- Jochum, Véronique and Belinda Pratten and Karl Wilding(2005). <Civil Renewal and Active Citizenship. A guide to the debate>. NCVO(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Action).
- Lash, Scott(2002). "Forward: Individualization in a Non-Linear Mode." *Individualization: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edited by Ulrich Beck and Elisabeth Beck-Gernsheim), vii-xiii. Sage.
- Lawson, Helen(2001). "Active Citizenship in schools and the community." *The Curriculum Journal*, 12(2). 163-178. DOI:10.1080/09585170122413

- Licherman, Paul(2006). "Social Capital or group style? Rescuing Tocqueville's insights on civic engagement." *Theory and Society*, 35(5/6): 529-563.
- Mascherini, Massimiliano and Anna Rita Manca, and Bryony Hoskins(2009). <The characterization of Active Citizenship in Europe>. 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er(JRC)-Institute for the Protection and Security of the Citizen(IPSC).
- Meijs, Lucas C.P.M. and Linda Bridges Karr(2004). "Managing Volunteers in different settings: Membership and Programme Management." R.A. Stebbins and M. Graham(eds). *Volunteering as Leisure/Leisure as Volunteering: an international Assessment*, 177-193, Wallingford: CABI Publishing.
- Moely, Barbara E., and Sterett H. Mercer, and Vincent Ilustre, and Devi Miron, and Megan McFarland(2002).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orrelates of the Civic Attitudes and Skills Questionnaire(CASQ): A Measure of Students' Attitudes Related to Service-Learning." *Michigan Journal of Community Service Learning*, 8(2): 15-26.
- Post-16 Citizenship Team(2007). *More than volunteering: active citizenship through youth volunteering*. LSN Quality Improvement Agency for Lifelong Learning ('QIA'). [www.LSNeducation.org.uk](http://www.LSNeducation.org.uk)
- Putnam, Robert. D.(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Rainie, Lee and Barry Wellman(2012). *Networked: The New Social Operating System*. Cambridge: MIT Press.
- Schmid, Hillel(2003). "Rethinking the policy of contracting out Social Services t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Lessons and dilemmas." *Journal Public Management Review*, 5(3): 307-323.
- Skocpol, Theda(2004). *Diminished Democracy: From Membership to Management in American Civic Life*.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Tisch, Jonathan(2010). <Active Citizenship: A New Approach to Volunteering>, Huffpost.
- Tocqueville, Alexis de(2013). 『미국의 민주주의』, 은은기(역). 계명대학교 출판부; 제목. 년도.

Verba, Sidney and Kay Lehman Schlozman, and Henry E. Brady(1995). *Voice and Equal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Wilson, Patricia. A.(1997). "Building social capital: A learning agenda for the twenty-first century." *Urban Studies*, 34(5-6): 745-760.

Wuthnow, Robert(2002). *Loose connections: Joining together in America's fragmented communit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Abstract

Hybrid Organization and Active Citizenship in the Era of Individualization: Effects of the 'Volunteering Program Targeting Like-Minded clubs' on Civic Attitude

Seon Mi Lee

(Seoul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volunteering program targeting mutual benefit and like-minded clubs' managed by Seoul Volunteer Center from the 'active citizenship' and the 'institutionally individualized volunteering.' And the effects of the program on the civic attitude of participants are also investigated. The decline of volunteerism can be understood in the sociological transformation of individualization. In the western societies, the paradigm shift toward the "institutionally individualized volunteering" has been reported. Such a transformation occurs in Korea, too. 'Volunteering program targeting on mutual benefit and like-minded clubs' is noteworthy to discuss in context of active citizenship and hybrid organization for volunteering. And the statistical analysis of participants' civic attitude indicates the positive effects of the program.

Key Words: active citizenship, volunteer center, individualization, citizenship education

논문신청일: 2020.07.29.

논문심사일: 2020.08.06.

게재확정일: 2020.08.26.